

## 아소린의 『의지』에 나타난 쇼펜하우어 사상의 문학적 형상화\*

조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스페인 현대 소설의 발전 과정에서 1902년은 중요한 해이다. 이전 세기의 소설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혁신적인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호세 마르티네스 루이스의 『의지 *La voluntad*』는 그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새로운 표현 방식과 더불어 당대 스페인에 들어온 철학 사상의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19세기 실증주의를 벗어난 반합리주의 전통에 토대를 둔다. 그런데, 일견하면 작품에는 그러한 전통과 관련된 여러 사상이 혼재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사상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근본적인 토대가 쇼펜하우어 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려고 한다. 그것은 주인공 아소린의 인생 여정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작품의 1부가 유스테의 말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사변적으로 전했다면, 2부 이후는 주인공의 삶 속에 그의 사상을 투영하고 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먼저 아소린의 삶과 관련하여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의지와 지성의 관계, 삶에 내재한 고통과 그 탈출구로서 삶에의 의지 부정과 체념의 미학을 탐색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는 『의지』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작품에 반영된 그의 사상과 당대 스페인의 역사적 현실의 관련성을 파악해보았다.

주제어 : 아소린, 쇼펜하우어, 표상, 의지, 고통, 체념

\* 이 결과물은 202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론

스페인 현대 소설의 발전 과정에서 1902년은 중요한 해이다. 이전 세기의 소설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혁신적인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오 바로하의 『완성의 길 *Camino de perfección*』, 라몬 델 바예 잉클란의 『가을 소나타 *Sonata de otoño*』, 미겔 데 우나무노의 『사랑과 교육 *Amor y pedagogía*』, 호세 마르티네스 루이스<sup>1)</sup>의 『의지 *La voluntad*』 등은 19세기 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환하며 동력을 상실한 채 정체되어 있었던 소설 장르를 새롭게 하였다(Fox 1989:27).

이 작품들은 객관적 서술과 상세한 묘사로 현실을 고스란히 재현하려는 19세기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완성의 길』은 주인공의 신비주의적인 여정과 작품 구조에서 열린 결말을 보여주었고, 『가을 소나타』는 많은 상징을 바탕으로 한 시적 산문의 형식을 드러내었으며 『사랑과 교육』은 실증주의적 교육과 대비되는 요소들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열린 텍스트를 추구했다. 아소린 역시 『의지』에서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이전 문학 전통과는 확연히 다른 형식적 개혁을 이루었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주관적 성찰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소설들의 바탕에는 형식적 개혁과 더불어 당대 스페인에 새롭게 들어온 반합리주의 철학 전통이 내재하여 있다(Calles 2004). 그런데, 그러한 전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의지』 역시 Johnson(1996)

---

1) 이 작가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의 필명인 아소린으로 많이 알려졌다. 따라서 논문 제목에서 아소린을 작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작가와 등장인물 사이에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피하려고 작가를 가리킬 때는 그의 성인 마르티네스 루이스로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아소린으로 표기하였다.

의 언급처럼 다양한 철학 전통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철학자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서로 다른 사상을 대변하는 여러 목소리가 들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토머스 모어, 쇼펜하우어, 몽테뉴, 그라시안과 같은 사상가나 성서를 대표하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서 비롯된다.<sup>2)</sup> 또한 2부에는 ‘영원 회귀’와 같은 니체의 사상이 나온다.<sup>3)</sup> 결국 이 작품에 하나의 철학적 사유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의지』에 여러 철학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관통하는 큰 흐름과 근본적인 토대가 쇼펜하우어 사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3부로 구성된 이 작품의 각 부분에 쇼펜하우어 사상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들어 있으며, 각 개념 간의 상관성을 떠올리면서 각 부분을 논리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작품의 1부에서 아소린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유스테가 마치 쇼펜하우어의 분신처럼 그의 사상을 제자에게 설교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스승의 죽음 이후 이어진 2부에서는 아소린의 삶을 쇼펜하우어의 표상과 의지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부와 에필로그에는 삶의 의지가 낡은 인간의 필연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쇼펜하우어적 삶의 방식이 암시되어있다. 1부가 유스테의 말을 통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사변적으로 드러냈다면, 2부 이후는 주인공의 삶 속에 그의 사상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지』의 1부는 유스테(Yuste), 라살데(Lasalde) 신부, 주임 신부 푸체(Puche)라는 인물들을 통해 철학, 문학, 성서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다양한 사상을 담고 있다. 유스테가 몽테뉴와 쇼펜하우어 등의 사상과 아나키즘을 대표한다면, 라살데는 토머스 모어와 그라시아의 사상을 드러내고 푸체는 성서와 관련된 종교적인 면을 표출한다. 이렇게 1부에는 세속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3) 작품 2부에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과 더불어 ‘힘에의 의지’ 개념도 보인다. 따라서 작품명인 ‘의지’ 역시 어떤 사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의지』에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작품에 반영된 그의 사상이 당대 스페인의 역사적 현실과 맺는 관련성을 떠올려보려고 한다.

## II. 유스테의 말과 아소린의 삶에 담긴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작품을 일견하면 신문 기사나 다른 책들에서 가져온 문장 등이 뒤섞여 이질적인 성격의 글들이 혼합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인다.<sup>4)</sup> 이때 아소린의 존재는 그러한 이질적인 구성을 하나로 묶는 기능을 한다. 1부에는 그가 스승인 유스테와 대화를 통해 서양 철학과 문학을 배우는 모습이 나온다. 그중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제시된다.<sup>5)</sup> 특히 유스테는 이 철학자의 ‘표상’ 이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말을 제자에게 전한다.

각각이 의식을 만들고, 의식이 세계를 만든다. 이미지 외에 다른 현실은 없으며, 의식 외에 다른 삶은 없다. 내적 현실이 외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류와 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가장 미친 사람이 가장 제정신일 수 있다(74).<sup>6)</sup>

그러면서 유스테는 “아소린,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하고

---

4) 『의지』에는 마르티네스 루이스가 『레비스타 누에바(Revista Nueva)』, 『마드리드 코미코(Madrid Cómico)』, 『메르쿠리오(Mercurio)』 등의 잡지에 실은 여러 글과 그의 연설문이 들어있다고 한다(Serrano 2012).

5) 1부 3장에서 유스테가 서재에서 아소린을 가르칠 때 화자가 그곳에 소장된 쇼펜하우어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언급하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상징하는 바 크다.

6) José Martínez Ruiz(1989), *La voluntad*, Madrid: Castalia, 74. 이후 이 텍스트를 인용할 때 괄호 안에 쪽 번호만 적는다.

사멸한다.”(72)라고 말하거나 “연기, 영광, 아름다움, 가치, 지능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과 세계 모두는 소멸한다”(97)고 언급하며, 세계는 실체로서 지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는다고 말한다. 작품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유스테의 일련의 말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2020:39)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말을 연상시킨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 이 경우 인간은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지니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즉 세계는 다른 존재인 인간이라는 표상하는 자와 관계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 분명하고 확실해진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의 표상적인 특성들은 사물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부가된 것일 뿐(이서규 2004:131)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이 사물 자체의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뇌의 작용 속에서 느끼고 지각하는 것만을 알 뿐이라는 쇼펜하우어의 표상 개념에 관한 스승의 가르침은 젊은 제자의 지적 형성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sup>7)</sup>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면의 현실이 외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194), “모든 것은 이미지이며, 현실은 나의 의식이다”(194), “모든 것은 공허하다. 이미지가 유일한 현실이며, 삶과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다”(204), “이미지 만세! 오류 만세!”(215) 등 스승의 말을 되뇌었다. 이렇게 유스테의 말이 아소린의 삶 속에 깊게 자리한다.

특히 1부가 스승과 제자의 대화, 유스테의 가르침과 이를 떠올리는 제자 아소린을 통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표상’ 개념을 담고 있다면,

7) 이것은 아소린이 “유스테의 가르침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정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229)라고 말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의 삶과 톨레도에서의 여행 경험을 담은 2부는 아소린이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의 의식에 나타난 세계에 대한 표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alles(2004)는 이와 관련하여 이 작품을 새로운 형식의 자전적 소설로 보고 ‘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새로운 서사적 관점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여기서 화자는 아소린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을 뿐이기에 결국 세계에 대한 아소린의 주관적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아소린은 연인이었던 후스티나의 죽음 이후 고향 예클라를 떠나 마드리드에 온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에게 비친 세계를 묘사하고 성찰한다. 그는 자유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신문 기자로서 일하며 문학·정치·언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소린의 의식 속에 비친 것 즉 그의 표상으로 제시된 당대의 지적인 세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가 가장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문필가들의 경박함, 가벼움, 일관성 없는 태도이다. 아마도 이것은 정치가 문학 속에서 만들어내고 부추긴 악일 것이다. 정치인보다 더 비열한 것은 없다. 정치인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무의식적으로 연설하며, 자신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약속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항상 멍청하게 자동으로 미소 지으며 웃는다. 이 미소를 아소린은 정치적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는 이 미소를 저널리즘과 문학에서도 발견했다. 저널리즘은 문학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 이제 문학은 거의 사라졌다. 저널리즘은 화려한 문체와 자기만족에 빠진 백과사전적 지식 유형을 경박하게 만들어냈다(195-196).

아소린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갖는 이러한 인식은 대상 자체에 안정되고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미지들과 관련을 맺으며 부유한다.

아소린은 모든 생각 주위를 맴돌며 나비처럼 움직인다. 그는 모든 감각을 즐기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엮고 풀기를 계속 반복하고, 불모의 시도를 지속하면서 삶은 무자비하게 흘러간다. 남기는 것은 단지 도망치듯 사라지는 몸짓, 외침, 분노, 역설의 흔적일 뿐이다(196).

자신이 일하는 곳과 그것과 관련된 대상들에 대한 관념을 떠올린 후 아소린은 마드리드 거리를 산책한다. 일견하면, 그가 다니는 거리의 사람들 모습, 건물, 풍경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Urrutia Gómez(1991:49)가 말하는 것처럼, 화자는 주인공이 바라보는 도시의 특정 풍경을 반복적으로 담아낸다. 그것은 아소린의 감각으로 형성된 도시에 대한 표상이다.

[...] 검은색과 흰색의 영구차가 지나간다. [...] 흰색 차가 나타난다. 흰색 관이 든 작은 차다. [...] 영구차가 갑작스럽게 심하게 흔들린다. [...] 그 뒤로 또 다른 차가 온다. 검은색 차에 검은색 관이 실려 있다. [...] 또 다른 흰색 차가 지나간다. 비둘기 그림자가 보도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 흰색 영구차가 지나간다. 검은색 영구차가 지나간다. [...] 검은색 영구차가 지나간다. 흰색 영구차가 지나간다. [...] 관들이 테이블을 거의 스칠 듯 지나간다. [...] 아소린이 앞으로 나아간다. [...] 영구차들이 지나간다. 아소린은 동부 도로를 걷는다. [...] 도로 위로 천천히 검은색 차들과 흰색 차들이 지나가고, 서두르며 돌아오는 검은색 차들과 흰색 차들이 있다. 뒤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차량이 흔들거리며 따라온다. [...] 도로 위로 차들이 계속 지나간다. 마부들이 외친다: “이제! 이제!”(197-199).

마드리드 거리에 대한 다른 묘사들과 함께 이렇게 반복적인 이미지들이 두드러지게 제시되는 것은 도시에 대한 아소린의 주관적 의식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2부 2장에서 흰색과 검은색 영구차가 도로를 번갈아 지나가는 반복적인 이미지는 먼저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 일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는 삶과 죽음이 서로 연

결되어 순환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리에 흔히 보이는 비둘기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영구차가 노천카페 앞에 놓인 테이블을 스칠 정도로 지나간다는 묘사는 죽음이 인간의 삶에 근접해 있음을 암시한다. 아소린은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서둘러서 지나가는 영구차들을 보며 삶에 내재한 시간의 흐름과 결국에 도달하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생각한다. 그가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검은색 차와 흰색 차의 모습과 운구 행렬, 멀리 보이는 묘지의 이미지가 여전히 이어진다. 이렇게 아소린이 바라보는 마드리드에는 고통과 죽음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아소린은 마드리드에서 보낸 10년에 지치고, 신문과 책에 싫증을 느끼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이 광란적이고 무의미한 춤을 떠올린다. [...] 마드리드에서 욕망, 고통, 죽음의 끔찍한 악몽에 의해 지치고, 숨 막힌 채 무너져버린 아소린은 순간 허무를 향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나아감을 생각한다(200).

마드리드 생활의 단조로움에 삶의 활력을 잃고 고통을 느낀 아소린은 스페인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한 톨레도로 여행을 간다. 도시의 거리 풍경과 사람들을 묘사한 후 그는 톨레도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이 도시와 스페인에 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성당의 거대한 종이 열 번의 종소리를 울리자 그 장엄한 소리가 잠든 도시에 울려 퍼진다. 아소린은 [...] 이 스페인 민족의 슬픔과 이 풍경의 슬픔에 대해 숙고한다. ‘사람들은 스페인이 갖는 기쁨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이 스페인 땅만큼 황량하고 우울한 것은 없다. 풍경이 슬프고 예술도 슬프다. 극적인 대비, 빛과 그림자의 급격한 변화, 눈에 띄는 색채와 그 반향, 눈 부신 빛과 끔찍한 회색으로 이루어진 풍경은 사람들의 정신을 경직된 형태로 만들어낸다(211).

톨레도에서 아소린은 도시의 오랜 역사와 풍경을 병치하며 현재 스페인이 놓인 상황을 떠올린다. 그것은 당대의 작가들이 스페인의 쇠퇴 원인을 찾기 위해 톨레도 이외에 아빌라, 세고비아, 살라망카와 같은 오래된 도시들을 마치 커다란 관에 비유하며, 그곳에 잠든 카스티야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과 관련된다(Casinos Assens 1998:329-330). 이렇듯 그는 톨레도에서 풍경과 정신을 연결하는데, 그것은 또한 스페인의 문화와 예술에 내재하여 있다고 말한다.

풍경처럼 정신은 단일한 모습과 단일한 톤을 가진 맑고, 엄격하며, 균일한 것이다. [...] 위에서 내려다본 톨레도 건물들의 소박하면서도 엄격한 풍경을 보는 것은 엘 그레코의 뒤틀리고 고뇌에 찬 인물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 끝없는 평야와 민둥산으로 이루어진 카스티야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예술에 영감을 불어넣는 근원을 감지하는 것이다(211).

마드리드와 톨레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속에 개인의 주관적 느낌을 불어넣고, 문화와 예술 속에 주관적 의식을 불어넣는 것처럼, 자신이 인식한 세계는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라보는 이의 감각과 주관적 의식으로 된 표상의 세계임을 인식한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 후에 그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갖는 세계에 대한 느낌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순간적이고 현재적 감각, 번개 같은 찰나적 순간들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존재입니다”(229). 세계는 현재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아소린이 바라보는 세계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그가 순간 순간 대상과 세계에 대해 갖는 감각과 주관적 의식이라는 것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제시한 쇼펜하우어 사상과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표상 개념은 쇼펜하우어의 전유물은 아니며 버클리나 칸트

를 비롯한 이전의 철학자들 역시 인간이 지각하는 세계와 그 너머에 있는 실체로서의 세계를 구분해왔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세계 인식에 대해 이전 사상가들과 자신이 다른 점을 ‘의지’의 개념을 통해 역설한다.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칸트의 ‘물자체’가 쇼펜하우어의 ‘의지’로 치환되는 것이다. 칸트에게 물자체는 지각으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그것은 모든 표상을 통하여 객관화하는 의지 자체였다(김진 2013:109).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관련된 물자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의지라는 실재하는 힘인 것이다. 따라서 쇼펜하우어 사상의 참모습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의지로서의 세계와 결합할 때 드러난다.

이를 작품에 적용할 때 우리는 1부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설명한다면, 2부 이후는 주인공의 삶 속에 나타난 ‘의지’와 그로 인한 삶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아소린의 삶은 2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부에서 스승인 유스테와 연인이었던 후스티나의 죽음이라는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한 그가 마드리드로 이주해서 생활하고 톨레도로 여행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에서의 경험에 그가 삶에의 의지를 갖고 지성을 도구로 욕망을 이루어가려는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로서의 세계가 아소린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재하여 있는지 살펴보자.

### Ⅲ. 아소린의 삶에 비친 의지와 지성

쇼펜하우어(2020:174)는 의지를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사물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우리에게 밝혀줄” 것으로 인간이 감지하는 표상이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으로 보았다. 겉으로 드러난 표상의 이면에 내재하여 있는 진정한 본질이 의지라는 것이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으로서 세계에서 모든 사물의 존재 그 자체며, 모든 현상의 유일무이한 핵심을 나타낸다(아르투어 쇼펜하우어 2020:182-183).

따라서 전술한 장에서 아소린이 바라본 세계는 그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그의 표상인데, 그러한 표상을 가능하게 한 의지로서 세계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표상은 ‘의지의 발현’(김진 2013:23)이라는 말처럼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갖는 모든 표상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 ‘의지’(욕망)를 매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의 세계관을 가능하게 한다. 아소린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는 무한히 연결된 원인과 결과의 연쇄입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고 숙명적이며, 어떤 것도 처음이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 이 힘은 쇼펜하우어가 ‘의지’라고 불렀던 신비로운 힘에서 비롯됩니다(218-219).

그렇다면 전술한 장에서 아소린이 마드리드와 틀레도를 영구차의 행렬과 같은 죽음의 이미지나 슬픈 풍경의 이미지로 보았는데, 이 도시들에 대한 그의 이러한 표상을 그가 그 도시들에서 지냈던 의지와와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작품의 1부는 아소린이 마드리드에 오기 전의 일을 다룬다. 그가 고향 예클라에서 스승인 유스테와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여러 학자와 이야기를 나눈 일, 후스티나와 사랑에 빠졌으나 그녀가 수녀가 되면서 좌절을 겪은 일, 이후 그녀와 스승의 죽음을 다룬다. 후스티나의 죽음 이후 아소린은 바로 마드리드로 와서 신문 기자로서 일한다. 그는 연인과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을 딛고 새로운 공간에서 삶의 의지를 다잡았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그 불행한 사랑의 실패 후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원고를 팔 아래에 끼고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떤 열정, 어떤 거칠고 길들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228). 그는

힘든 일을 겪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가 다시 생겨난다고 보며 그런 만큼 삶에서 근본적인 것으로서 ‘의지’에 대해 말한다.

겉보기에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선이 될 수 있음을 보라. 왜냐하면, 성찰과 자기 분석의 상실은 의지를 사라지게 하지 만, 그 후에 내재하여 있던 의지가 강력하게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96).

아소린의 말처럼 인간을 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본질은 집요한 의지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인간의 다른 어떤 능력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마드리드에서 그에게 강력히 작용한 의지는 경직된 사회의 부조리와 위선을 고발하는 신문 기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당대의 지성계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재앙과 같은 존재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자유주의자인 그가 쓴 자유 연애에 관한 기사가 나오자 구독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편집장 역시 그를 질타하며 그것에 관한 글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한다. 이내 아소린은 처음의 열정과과는 다르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회의와 지루함을 느낀다. 그는 “수많은 책을 탐독하고 수천 장의 종이에 글을 쓴 후 내 이름이 약간 유명해진 다음에 나온 이 지루함”(228)이라고 토로한다.

아소린은 처음의 열정이 식고 신문 기자로서의 일과 문학적 삶에 대해 싫증과 권태를 느낀다. 이때 그는 자신에게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톨레도로 여행한다. 그곳에서 그는 길에서 본 한 여인과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꿈을 꾸며 또 다른 의지를 드러내 보인다.

아소린 자신도 문학적 소동에 지쳤으니, 이 점은 망토를 두른 여인과 결혼한다면 아주 행복할 것이다. [...] ‘나는 여기 톨레도에서 한결같은 톨레도 남자가 되어, 이렇게 매력적이고 탐스러운 모습의 여인, 오뚝한 가슴과 도발적인 순결함을 지닌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209).

하지만 그녀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낀다. 아소린은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낀다. 마드리드 생활에 지친 그는 툴레도 여행에서 삶의 활력을 새롭게 얻으려고 했으나 이 역시 부질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계속해서 의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고통을 낳고 충족되더라도 이내 또 다른 의지가 나타나는 순환 속에서 염세적인 감정에 빠져든다. “모든 것은 공허함과 거짓이다. 우리의 삶조차도 ‘짧은 하루’에 불과하며, 아침에는 푸르렀다가 저녁에는 마르는 풀과 같다”(212).

나아가 아소린은 의지의 작용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을 인간 전체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툴레도의 길거리에서 한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자식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키려는 의지를 떠올리고 인간의 그러한 욕망에는 결국 고통이 따름을 상기시킨다.

[...] 불멸에 대한 괴기스러운 욕망이 우리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하면서 우리를 지속하게 만든다. 나는 인간이 항상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고통, 더 나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시 또 다른 욕망으로 인해 더 깊은 고뇌를 느껴야만 하는 것, 즉 인류를 무한히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지 고통만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범죄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229).

아소린은 인간의 의지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을 이렇게 성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근원에는 또한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지성의 작용 역시 개입하고 있다. 에필로그에서 마르티네스 루이스는 의지가 없으면, 지성 역시 힘을 잃게 된다고 말하면서 의지와 지성의 상관성을 언급한다(297). 그런데, 지성은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이면서 또한 의지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고통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면은 그의 스승인 유스테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 지성은 악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다. 관찰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은 죽음을 느끼는 것이며, 우리 존재와 주변의 모든 것이 무(無)의 신비로운 대양으로 향해가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을 느끼는 것이다(180).

이렇듯 지성은 의지를 실현해가는 수단이면서 또한 인간에게 의지가 갖는 속성을 이해하게 한다. 여기서 지성을 악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지에서 비롯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무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지성을 통해 의지의 속성을 이해하면 인간은 의지에서 비롯된 욕망이 궁극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성이 자기 삶을 관찰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지의 속성을 일깨워주는 지성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Livingstone(1967:84)은 지성으로 인해 인간은 동력을 상실한 채 마비 상태가 된 자신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불운한 구경꾼이 된다고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소린은 의지로 무장한 공격적인 ‘나’와 의지에서 비롯된 고통을 일깨우는 성찰적인 ‘나’ 사이에서 갈등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이다”(267)라는 말은 의지와 지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위 문장은 의지에서 기인한 욕망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의 계속되는 순환성 말하자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고통이 따르고,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겨서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진다는 쇼펜하우어의 핵심 사상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Calles(2004)의 언급처럼, 아소린의 마지막 길은 욕망과 그에 따른 실망과 실패가 점진적으로 쌓인 끝에 소멸로 향하는 길이며, 그의 인간적이고 이념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출구 없는 길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소린이 고통, 슬픔, 죽음의 이미지로 바라본 마드리드와 톨레도는 그의 의지가 발현될 때 나타난 그의 표상과 관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욕망과 고통의 순환 속에서 형성된 이 도시들에 대한 표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소린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의지를 부정하고 욕망을 억제해야 함을 배운다. 행복은 욕망과 고뇌로부터의 해방이지만, 성취한 만족이 권태로 변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김진 2103:112). 삶의 이러한 법칙 앞에서 인간은 그 법칙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작품의 3부는 아소린이 삶에 내재한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고 극복해가는 지를 다루는데,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의지에서 비롯된 항구적인 고통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삶에의 의지 부정’과 ‘체념’을 제안한 것과 관련된다.

#### IV. 탈출구로서 삶에의 의지 부정과 체념의 미학

3부에서 아소린은 마드리드 생활을 접고 다시 예클라로 돌아온다. 이 때 1인칭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는 독자에게 자기 생각을 직접 전하는데, 자기의 삶이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의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마드리드에서 예클라로의 공간 이동이 그의 정신적 여정의 전환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마드리드에서 아소린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좌절하고 점차 환멸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성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그는 실망감에 사로잡힌 채 고향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마드리드에서 지성을 도구로 반복적으로 이어갔던 삶을 벗어던지기로 한다.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 내 평온함이 단지 피로감일 뿐일까 두렵지만, 나는 쉬어야 한다. 이를 전만 해도 마드리드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나왔다. ‘문학적인 삶’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안에는 뭔가 가식적이고, 폭력적이며, 단조로운 것이 있어서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아니,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수사적인 표현을 원하지 않는다(263).

마드리드에서 그에게 실망감을 안긴 영역은 종교, 철학, 과학, 정치, 문학 등 인간 지성에 관련된 제반 영역에 걸쳐 있었기에, 그곳에서의 떠남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에서 우리나라오는 아름다움을 자신의 존재에 본질적인 요소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Calles 2004 참조). 아소린은 예클라에서 마드리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욕망을 추구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예전에는 없었던 평온함, 고요함, 지적인 명료함을 내 안에서 느낀다. [...] 모르겠어, 모르겠어. 확실한 것은 예전처럼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에 맞서던 그 격렬한 공격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격렬한 분노로 몹서리치게 했던 그 야수 같은 에너지를 이제는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261).

그것은 또한 신문 기자와 작가로서 화려한 문체와 멋진 수식어로 글을 쓰던 이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필요한 말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제 나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 무관심하다. 이 무관심의 첫 번째 결과는 나의 문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책에 대한 무관심이다. 나는 한때 ‘뛰어난’ 작가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행히도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대신에 이제 단순한 표현 방식을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261).<sup>8)</sup>

---

8) 이러한 면을 구조적으로 반영이라도 하듯이 작가 역시 서술의 모든 요소를 최소로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길을 택하며 많은 것을 서술하지 않으려고 한다(Fox

이렇듯 3부에서 아소린은 그동안 그를 지배했던 지적인 삶에 대한 의지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한다. 여기서 ‘삶에의 의지 부정’이란 어떤 실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의욕하지 않는 행위,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의욕해 온 것을 더 이상 의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아르투어 쇼펜하우어 2013:326). 그것은 1부에서 라살테와 유스테의 대화에서 이미 언급된다.

스토아학파가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체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진실한 평온함에 도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결코 이를 수 없었던 고평함과 행복감을 느끼며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170).

이러한 언급은 쇼펜하우어가 철학자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삶에의 의지 부정을 제안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어쩌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모든 신화적인 것을 떠나 추상적이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완결된 인식이 그에게 모든 의욕의 진정제가 된 뒤 삶에의 의지의 부정으로 나타나고 성스러움, 자기 부정, 아집의 근절, 금욕의 내적 본질이 표현되었는지도 모른다(아르투어 쇼펜하우어 2020:510).

이러한 의지의 부정과 체념은 3부와 에필로그에서 보이는 아소린의 삶에 대한 방식이 된다. Fox(1989:36)에 의하면, 에필로그에서 그가 일루미나다(Illuminada)와 결혼하고 그녀의 의지와 예클라의 단조로운 일상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의지로 충만했던 주인공의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마르티네스 루이스는 아소린의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아소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 줄도 쓰지 않고, 거의 읽지도 않는다. [...] 그는 가끔 시골에 가서 6일에서 8일 정도 머물기도 한다. 그러나 농사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수 없고, 소작농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이는 오직 그의 아내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산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일한다. 아소린은 그저 모든 걸 맡겨두고 살아간다(288-289).

아소린이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면서 시골 생활에 침잠하는 것은 더 불행해지지 않으려는 쇼펜하우어식 실천 방식이다. Núñez Hernández (2020:346)의 언급처럼, ‘체념의 미학’은 마르티네스 루이스 소설 속 인물에게 구현되고 상징화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체념은 단순히 포기하는 무기력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내재한 고통이 의지와 욕망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부정과 체념에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자유를 구하기 위한 윤리적 태도가 들어있다.

## V. 98세대와 쇼펜하우어

Fox(1979:397)는 98세대의 정신적인 안내자로 니체가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9)</sup> 이는 무엇보다 삶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엄세적 시선과 이에 대처하는 윤리적 태도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당대의 작가들에게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먼저 한 개인이 삶 속에서 직면하는 위기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바로하가 『과학의 나무 *El árbol de la ciencia*』

9) 스페인 지식인들은 쇼펜하우어를 1894년에서 1902년 사이에 출판된 안토니오 소사야(Antonio Zozaya)의 번역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미겔 데 우나무노가 1900년에 번역한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통해 알게 되었다(Herrero Pintado 2014:24).

의 주인공 안드레스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삶에의 의지가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삶에 대한 염세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그 대응 방식을 제안(조민현 2021:257-258 참조)한 것처럼, 마르티네스 루이스는 『의지』에서 아소린의 인생 여정을 통해 쇼펜하우어가 상징하는 삶의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 개인의 모습은 위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자는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마침내 아소린은 마드리드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어디로 가는가? 지리적으로 아소린은 자신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그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아소린은 거의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255).

어디로 갈지 방향하는 주인공의 정신적 여정은 당대 스페인 지식인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먼저 아소린은 작가 호세 마르티네스 루이스를 대변한다. 마르티네스 루이스가 『의지』 출판 이후 주인공의 이름인 아소린을 자신의 필명으로 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마르티네스 루이스가 98세대의 대표적인 작가인 만큼 아소린은 당대 스페인의 지식인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비칠 수 있다(Fox 1989:39). 이와 관련하여 Ezpeleta Aguilar(2010:70)는 마르티네스 루이스의 소설이 ‘성장 소설’의 틀을 따른다고 하며, 이때 아소린의 모습은 98세대 소설론의 지적인 탐색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본다. Lozano Marco(2000:142) 역시 작품에 작가와 그의 민족 사이의 깊은 연대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는 작가의 문학적 창조의 발판이 된 당대 스페인에 대한 깊은 연민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결국 아소린의 여정 속에 나타난 고뇌와 좌절은 당시 98세대가 마주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Calles(2004)의 언급처럼 암울하고 슬픈 스페인의 초상에 관한 것이다.

이상의 분열은 그 세대의 많은 구성원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현실이었으며, 그들은 국가의 현대화를 이루는 동시에 전통적 이념을 합리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를 통해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9세기 내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명의 진보와 국가적 발전을 이루려는 계획이 눈앞에 드러난 현실 앞에서 허상임을 목격한 당대의 지식인들은 고통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자각한다. 삶에의 의지와 그에 따른 필연적인 고통을 주장한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그러한 자각을 일깨우고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적합하였다. ‘표상’과 ‘의지’로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그의 사상은 실증주의적 사고의 위기, 스페인의 쇠퇴, 암울한 미래라는 불안감 속에 놓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98세대의 지식인들에게 가시적 현실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자각하게 하고 직면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안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VI. 결론

스페인에서 철학 사상의 수용은 철학 분야 자체에서보다 문학의 영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조민현 2021:243). 스토아 철학이 케베도의 신스토아주의로 에라스무스주의가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이나 세르반테스 같은 황금 세기 작가들의 문학에 영향을 준 것처럼, 쇼펜하우어 사상 역시 문학가들을 통해 먼저 수용되고 그들의 작품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Fuster 2014:137).

스페인은 현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문주의를 발전시켜 왔기에 철학 사상의 문학화는 추상적 개념을 등장인물의 행적을 통해 실제 삶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철학적 사유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철학 사상을 특정 시대의 역사적 현실과 연결하여 살펴보면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철학 사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철학적 논의를 단지 이론적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 논의가 다양하고 입체적인 인간의 삶과 시대적 문맥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의지』는 아소린이라는 인물의 정신적 여정을 다룬다. 그의 삶은 크게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모습과 예클라를 벗어나 마드리드 등에서 생활하고 다시 예클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대변된다. 작품의 1부가 쇼펜하우어의 표상 이론에 대해서 스승 유스테가 전하고 이를 학습하는 아소린의 모습을 그렸다면, 2부는 아소린에게 비친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그것을 발현하게 한 그의 의지를 다룬다. 여기에는 의지에서 비롯된 고통과 권태의 문제, 의지와 지성의 관계가 내재하여 있다. 3부와 에필로그에는 의지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을 극복하는 삶의 방식으로 ‘삶에의 의지 부정’과 ‘체념’의 의미가 들어있다.

마르티네스 루이스는 아소린의 이러한 인생 여정이 예클라, 마드리드, 톨레도라는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여주었다. 마드리드와 톨레도는 아소린의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가 표출되는 공간이다. 특히 마드리드는 Urrutia Gómez(1991:51)의 언급처럼 지성이 발휘되는 공간이다. 프롤로그부터 오랜 기간에 걸친 성당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소개되기 시작한 예클라는 아소린이 성장하고 마드리드에서 생활한 후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 곳이다. 따라서 그곳은 주인공이 삶에 실망하고 좌절한 후 돌아와 또 다른 삶을 택한 데서 보듯이, 국가적 쇠퇴를 경험한 당대의 지식인들이 마주할 어떤 스페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Calles(2004)는 아소린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차원에서 시대적 위기를 인식하기 위한 ‘세상 앞에 선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과 공간을 설정하면서 마르티네스 루이스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삶의 본질적 측면을 담은 쇼펜하

우어 사상을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작가가 유스테의 입을 빌려 확인한 것처럼, 삶은 다양하고, 입체적이며, 물결치고, 모순적이기에 소설 역시 그러한 면을 담아내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33).

이렇듯 인간의 삶에 대한 입체적 질문과 관련된 사상을 문학작품 속에서 파악할 때, 우리는 추상성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시대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진(2013),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읽기」』, 세창미디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홍성광 옮김(2013),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을유문화사.
-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홍성광 옮김(2020),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을유문화사.
- 이서규(2004), 『쇼펜하우어의 철학』, 이문출판사.
- 조민현(2021), 「『과학의 나무』에 나타난 삶과 행복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세계문화비교연구』 74집, 세계문화비교학회, 241-260.
- Calles, Juan María(2004), “*La voluntad* de Azorín y la renovación de la novela española a principios del siglo XX”  
[https://www.academia.edu/99423211/La\\_Voluntad\\_de\\_Azor%C3%ADn\\_y\\_la\\_renovaci%C3%B3n\\_de\\_la\\_novela\\_espa%C3%B1ola\\_a\\_principios\\_del\\_siglo\\_XX](https://www.academia.edu/99423211/La_Voluntad_de_Azor%C3%ADn_y_la_renovaci%C3%B3n_de_la_novela_espa%C3%B1ola_a_principios_del_siglo_XX) (검색일: 2024.11.14.)
- Cansinos Assens, Rafael(1998) “Toledo en la novela”, *Obra crítica II*, Sevilla: Diputación de Sevilla.
- Ezpeleta Aguilar, Fermín(2010), “Formación y maestro en *La voluntad* de Azorín”, *Anales* 22, 65-83.
- Fox, E. Inman(1989), “Introducción biográfica y crítica”, *La voluntad*, Madrid: Castalia, 9-47.
- Fuster, Francisco(2014), *Baroja y España: Un amor imposible*, Madrid: Fórcola.
- Herrero Pintado, Joaquín(2014), “Génesis e influencias de la filosofía de Schopenhauer”,  
[https://filosofias.es/wiki/lib/exe/fetch.php/ensayos/herrero\\_pintado\\_joaquin\\_-\\_genesis\\_e\\_influencias\\_de\\_la\\_filosofia\\_de\\_schopenhauer.pdf](https://filosofias.es/wiki/lib/exe/fetch.php/ensayos/herrero_pintado_joaquin_-_genesis_e_influencias_de_la_filosofia_de_schopenhauer.pdf)

(검색일: 2024.12.17.)

Johnson, Roberta(1996), “*La voluntad* de Azorín: Schopenhauer bajo prueba”,  
[https://rua.ua.es/dspace/bitstream/10045/7367/1/ALE\\_12\\_09.pdf](https://rua.ua.es/dspace/bitstream/10045/7367/1/ALE_12_09.pdf)

(검색일: 2024.10.17.)

Livingstone, Leon(1967), “The Theme of Intelligence and Will in the  
Novels of Azorín”, *Romanic Review* 58, 2, 83-94

Lozano Marco, Miguel Ángel(1996), “Schopenhauer en Azorín. La  
‘necesidad de una metafísica’”, *Anales de Literatura Española*  
12, 203-215.

Lozano Marco, Miguel Ángel(2000), *Imágenes del pesimismo: Literatura  
y Arte en España 1898-1930*, Publicaciones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Martínez Ruiz, José(1989), *La voluntad*, Madrid: Castalia.

Núñez Hernández, Daniel(2020), *La renovación de la novela en Azorín*,  
Tesis doctoral, Universidad de Santiago de Compostela.

Serrano, Anastasio(2012), “Estructura y significado de la *Voluntad* de Azorín”,  
<https://erudicion.blogspot.com/2012/06/estructura-y-significado-de-la-voluntad.html> (검색일: 2024.10.30.)

Urrutia Gómez, Jorge(1991), “Estructura, significación y sentido de *La voluntad*”, *Dai Modernismi alle Avanguardie: atti del Convegno dell'Associazione degli Ispanisti Italiani*, 41-52.

❖ ABSTRACT

Literary Representation of Schopenhauer's  
Thought in Azorín's *Will*

Cho, Minhyu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year 1902 is a significant on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panish novels. This was because innovative works that could clearly distinguish them from novels of the previous century came out. José Martínez Ruiz's *Will* is one of them. In addition to being written in a new style of expression, this work also contained a considerable amount of influence from philosophical ideas that were entering Spain at the time. It was based on a tradition of anti-rationalism that deviated from 19<sup>th</sup> century Positivism which was firmly rooted in concepts of reason and rationality. However, there is ambiguity about what the work is ultimately saying since it contains a mixture of various ideas related to such traditions. Nevertheless, this study attempted to reveal, above all, that the fundamental base of this work was directly influenced by Schopenhauer's thought. It was revealed through the life journey of the protagonist, Antonio Azorín. While the first part of the work theoretically conveyed Schopenhauer's thoughts through Yuste's words, after the second part, his thoughts were projected into the protagonist's life. To reveal this, we first examined the world of representation and will in relation to Azorín's life. We then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will and intelligence, the pain inherent in life, and the denial of the will to live and the aesthetics of resignation as an escape from it.

In this way, this study explored how Schopenhauer's ideas were literaryized in Azorín's *Will* and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ideas reflected in the work and the historical reality of Spain at the time.

Keywords: Azorín, Schopenhauer, representation, will, pain, resignation

■ 논문투고일 : 2025. 01. 10

■ 심사완료일 : 2025. 02. 01

■ 게재확정일 : 2025. 02. 07